

방수현 이후 24년 만에 女단식 메달 기대



도쿄 향해 뚫다

배드민턴 기대주 안세영



중 3패 태극마크...2년만에 세계랭킹 9위 '폭풍 성장' 한국 선수 최초 BWF 신인상 수상... '스타 탄생' 예고

해성처럼 나타난 한국의 '천재소녀'가 올림픽 무대에서도 파란을 이어갈지 세계 배드민턴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인공은 배드민턴 여자단식 국가대표 안세영(18·광주체고)이다. 안세영은 2017년 12월 열린 2018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성인 실업 선수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아 화제에 올랐다. 당시 안세영은 중학교(광주체중) 3학년이었다. 중학생이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이용대(32·요넥스) 이후 안세영이 처음이다. 안세영은 단숨에 2020 도쿄올림픽 기대주로 떠올랐다. 안세영은 2018년 2월 국제대회에 데뷔해 경험을 쌓았다. 경력이 없어 등급이 낮은 대회에 출전하며 조금씩 랭킹을 끌어올렸다. 2019년에는 '폭풍 성장'을 했다. 5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대회인 뉴질랜드 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상승세를 이어나가 7월 캐나다 오픈, 8월 아카티 마스터스 등 슈퍼 100 대회에서 우승컵을 수직했다. 10월에는 대형 사고를 쳤다.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슈퍼 750 대회 프랑스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월에는 슈퍼 300 대회인 광주 코리아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파죽지세 안세영 앞에서 세계 정상의 여자단식 스타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카롤리나 마린(스페인), 2019 세계 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챔피언 푸살라 신두(인도), 세계랭킹 1위 출신 타이핑잉(대만), 세계 톱3의 실력을 갖춘 아마구치 아카네(일본)를 각각 완파

했다. 안세영의 거침없는 성장에 외신들도 "스타가 탄생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BWF는 지난해 12월 시상식에서 안세영에게 '올해의 신인상'을 수여했다. 안세영은 한국 선수 최초 BWF 신인상 주인공이었다. 2018년 3월 1천341위였던 안세영의 세계랭킹은 9위(2020년 1월 14일 발표)로 꺾춤 뛰어들었다.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본선에 출전하려면 오는 4월 말 기준으로 세계랭킹 16위 안에 들어야 한다. 또 국가별 상위 2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안세영은 이미 한국 여자단식 간판으로 활약해온 성지현(29·인천국제공항·세계랭킹 12위)을 넘어섰다. 대표팀 여자단식을 지도하는 장영수(38) 코치는 "안세영은 수비와 기본기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흡수력이 매우 빠르다"며 안세영이 짧은 기간에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비결을 설명했다. 안세영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넘어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적을 기준으로 한 '올림픽 레이스 랭킹'에서는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안세영이 성장을 이어가면 '전설' 방수현(47)의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은메달,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이후 맥이 끊긴 여자단식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안세영은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관심받는 게 좋다"며 젊음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서 좋다"며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큰 점수 차로 이기면 좋겠고, 모른다"며 메달 세리머니를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가자 도쿄로...목표는 10-10”

태극전사들 훈련 개시식 달달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올림픽 전까지 몇 번이고 선수촌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기흥 회장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열정과 사기가 느껴진다"며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되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자체가 국민에게 감동과 울림을 준다"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최대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권 이내 유지를 기대하며 '10-1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도쿄올림픽은 7월24일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나아름, 도쿄行 행운의 티켓

개인도로 출전권 획득...트랙월드컵 출전 티켓 도전

나주 출신 사이클 국가대표 나아름(사진)이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도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 16일 대한자전거연맹에 따르면 한국 사이클은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개인도로 출전권 1장을 확보한 상태다. 나아름이 따낸 출전권이다. 나아름은 지난 4월 올림픽 출전권 1장이 걸린 2019 아시아도로서이클 선수권대회 여자 개인도로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47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던 나아름의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런데 당시 1위를 차지한 울가 자벨린스카야(우즈베키스탄)가 아시아선수권 우승 자격이 아닌 세계랭킹 상위권자 자격으로 도쿄행을 확정하면서 2위인 나아름에게 기회가 남아왔다. 나아름은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

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이어 3회 연속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다. 나아름은 트랙에서도 도쿄 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나아름은 김우리, 이주미, 김현지, 강현경, 장수지와 함께 오는 23-24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사이클연맹(UCI) 6차 트랙월드컵에 출전한다. 이 월드컵과 오는 2월 열리는 세계트랙사이클선수권연맹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세계랭킹을 8위 내로 끌어 올리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추발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KIA, 내달 1일 스프링캠프 돌입

선수 57명 참가...맷 윌리엄스 감독 리더십 주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0시즌을 대비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는 오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로출부해 다음달 1일부터 3월7일(현지시간 6일)까지 포트마이애스(테리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맷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20명, 선수 54명 등 74명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고, 2

월 20일부터 미국 독립리그 및 대학 팀들과 1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로운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선수들의 기량 파악이 첫 번째 과제다. 육석을 골라내고 짜임새 높은 야구를 구상하는 캠프다. 선수들은 윌리엄스 감독과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다. KIA 구단 첫 메이저리그 출신 외국인 사령탑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이 높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단을 2개 조로 나누어 경기와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훈련과 연습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백희중기자



코너 맥그리거가 19일 열린 UFC 246 웰터급 메인 이벤트에서 도널드 세로니를 상대로 40초 만에 TKO승을 거둔 후 표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맥그리거 '화끈한 복귀전'

세로니에게 40초 TKO승

세계적인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간판스타 코너 맥그리거(32·아일랜드)가 화려하게 돌아왔다. 맥그리거는 1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46 웰터급 메인 이벤트에서 도널드 세로니(37·미국)를 1라운드 40초 만에 TKO로 눌렀다. 맥그리거는 시작하자마자 기습적인 펀치에 이은 니킥을 세로니에게 꽂아 넣은 뒤 접근전을 펼쳤다. 세로니가 뒤로 물러서자 왼발 하이킥을 세로니의 머리에 적중시켰다. 맥그리거는 세로니가 충격을 입고 흔들리자 이를 놓치지 않고 쉴 새 없이 파운딩을 퍼부었다. 세로니는 위기에선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승부가 결정된 것은 이미 분명해 보였다. 허브 딘 주심이 맥그리거를 때어냈고, 그렇게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다. 맥그리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UFC 역대 최다승에 빛나는 세로니(23승)를 무너뜨렸다. /연합뉴스



광주FC 선수들이 19일 태극으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나기 위해 올 시즌 K리그1 무대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FC 제공

“원팀의 힘...K리그1도 빛낸다”

광주FC, 내달 13일까지 태극에서 2차 전지훈련

박진섭 “조직력 완성자신...최상의 조합 찾을 것”

프로축구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 FC가 2020시즌을 대비해 태극 치앙마이 이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지난 2일 소집해 순천 일대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한 광주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차 전지 훈련을 이어간다. 지난 1차 동계훈련에서 체력강화에 집중한 광주는 태극에서 2020시즌을 향한 실전감각 향상과 함께 육체 가라기에 초점을 맞추고 담금질에 나선다.

국내 클럽과 태극 현지 팀을 포함해 6차례의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들간의 호흡을 끌어올려 최상의 조합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박진섭 감독은 “승격을 이룬 기존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모두 조직력과 팀워크 부분에서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영입선수들과의 호흡과 유대감이 빠르게 좋아졌다”며 “연습경기를 통해 팀 전술에 맞는 조합을 찾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K

리그1에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클럽맨” 여름은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우승은 잊고 오로지 K리그 무대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력이다. 많은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한 원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팀에 합류한 김창수는 “팀에 합류해서 실감한 광주의 키워드는 성실, 열정, 희생, 그리고 원팀이다. 그만큼 선수단 모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며 “개인 실력 차가 크지 않아 베테랑들도 훈련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중기자

KIA 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스태프 Coaching Staff
윌리엄스 감독 워터마이어 사재용 맨서니 송지만 최희섭 김민우 이현국 김중국
진강용 객정철 서동욱 배요원 정상우 유재민 윤인덕 방석호 오준형 조세범 윤태중

투수 Pitcher
양현종 고영창 김승범 김현수 김현준 문경찬 박동민 박서준 박정수 박준표
박진태 백미카엘 변시원 서덕원 양승철 김기훈 이민우 이준영 임기영 전성현
차명진 하준영 홍건희 홍상삼 가병 브룩스 정혜영(산인)

포수 Catcher
한승택 김민식 백용환 이정훈 한준수

내야수 Infielder
고정혁 김규성 김선민 나주환 박진두 박찬호 유민상 최정용 황윤호 황대인
박 민(산인) 홍중표(산인)

외야수 Outfielder
최형우 터커 나지안 문선재 박준태 오선우 이우성 이진영 이창진 최원준

KIA TIGERS